



오늘의 날씨 | 흐림 | 기온 -13℃/-8℃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음력 1월 21일)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석간



구독신청 02-722-8165

제 994호



“동성애와의 싸움, 순교자적 자세로 임해야”

‘동성애 반대’ 외치며 PCUSA 탈퇴한 필그림(선교)교회 양춘길 목사 방한

동성애 광풍이 몰아쳤던 미국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동성애를 허용한 교단을 탈퇴, 광야 길로 나선 필그림(선교)교회 성도들. 그들의 목자인 양춘길 목사가 방한해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한국교회만은 절대 동성애 파고에 허물어지지 말라고 조언하는 자리를 가졌다.

21일 낮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는 수요예배 직후 양춘길 목사와 기자들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양 목사와 필그림교회 2천 여 성도들은 동성애자 성직 임명과 동성애자 결혼 허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그로 인해 기존의 예배당 재산권까지 잃게 됐다. 그러나 이들은 교단을 나와 ‘필그림선교교회’로 새롭게 출발했다.

양춘길 목사는 먼저 “미국 내 한인교회들은 모두 동성애를 반대 한다”고 밝히고, “다만 교회들의 선택은 다르면, 교단에 남은 교회들도 있고 떠난 곳도 있다”면서 “교단에 남았다고 해서 모두 다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양 목사는 2011년 교단에서 처음 동성애자 안수를 통과시켰다고 밝히고, 그 일 직후 필그림교회 당회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 성경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작부터 리더십이 하나 된 것, 당회가 하나 된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외견 차이는 약간 있었을 지언정 교단을 떠난다는 의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했다.

필그림 성도들은 그렇게 준비해서 노회가 준비한 은혜로운 결별정책을 4년여에 걸쳐 모두 충족시켰다고 한다. 공동의회도 2년 모였는데, 교회 자체적으로 투표한 첫 공동의회에서는 성도 98%가 교단을 떠나기로 했었고, 이것을 노회가 인정하지 않아 1년 후 노회가 직접 공동의회

를 주관해 한 투표에서도 큰 차이없이 성도 97%가 교단을 떠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는 마지막 2016년 11월 노회에서 “필그림교회는 교단을 떠날 수 없다”고 막았다고 양 목사는 전했다.

그래서 필그림 성도들은 다시금 2017년 8월 공동의회를 열었고, 노회가 가지 못하게 해도 우린 타협하지 않겠다며 독립선언을 했다고 한다. 양 목사는 “건물을 빼앗길 것을 알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ECO)에 가입했다”면서 “그 때도 성도 98%가 독립하고 나가자고 찬성했다”고 했다. 결국 노회는 그해 9월 말 세상법정에 양 목사와 당회원들을 고소했고, 아예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까지 발동했다고 한다. 죄목은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이 성도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것으로, 그렇기에 이들이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가 속한 주, 노회는 3일 내로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챙겨 교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노회 행정전권위원회로 당회 역할을 하고, 임시당회장이 파송됐으며, 교회는 PCUSA의 것이라 선언했다. 양 목사는 “그 때 우리도 당회를 열고 공동의회를 했는데, 94.2%가 ‘다 같이 건물도 포기하고 나가자’고 했다”면서 “12월 25일 성탄예배를 그 건물에서의 마지막 예배로 드린 후, 12월 31일 그 해 마지막 예배는 나가서 드렸다”고 설명했다.

양춘길 목사는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였는데, 교회 표어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다”고 밝히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500주년 마지막 주일 성경말씀 따라 결단하고 나설 수 있게 하셨다”면서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먼저 새롭게 변화시켜 이 시대 개혁의 불씨로 쓰시려 하나보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고 이야기 했다.

비록 현재는 이웃 교회와 학교 등을

예배당으로 빌려 쓰는 처지이지만, 그 이후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 됐고, 더 많은 이들이 예배에 출석하게 됐다고 한다. 양 목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께 먼저 감사 드린다”고 했다. 또 그는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 드린다”고 밝히고, “당회를 비롯해 성도들이 하나 되니 가끔 흔들렸던 본인의 마음도 다시 새로워지고,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내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금 갖게 됐다”고 했다.

양춘길 목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라 했다.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필그림선교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동성애는 받아들이 수 없지만, 동성애자들은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며, 그들이 치유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조차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의 역량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더 나아가 그는 “연합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교회들이 연합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선교적 교회 운동에 앞장서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양 목사는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면 차별로 몰릴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의식하면서도,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 그대로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인용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조차 시비에 걸릴 수도 있었으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며 “여호와 말씀은 받은 대로 선포해야 한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라 했다.

더 나아가 양 목사는 “동성애와 싸우는 것, 동성애가 변해 나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진리를 고수하는 것, 이것은 순교자적 자세로 해야만 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고작 건물을 포기하고 나온 것이지만, 그보다 더한 일들이 미국

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순교자적 믿음이 살아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또 양 목사는 “미국이 계속 이대로 가다보면 결국 성경이 금기 도서가 되지 않을 거 같다”고 말하고, “불법 책이 되어 성경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동성애 내용을 다 바꾸던지 해야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청교도가 세웠던 기독교 국가인데,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다면 2년 후인 2020년은 청교도가 미국에 도착한지 400년이 되는 해”라며 “하나님께 이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는 시작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춘길 목사는 한국교회의 동성애 대처가 미국교회보다는 앞섰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배 차원에서 확실하게 막지 않으면 한 번 넘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하고, “그런 면에서 강하게 나가는 것은 좋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한국교회가 더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 된다”고 말하고, “이것은 교단만의 문제가 아닌 기독교의 문제”라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 창조의 질서, 이것은 어느 교단이고 다를 바가 없다.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을 이루고 이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목사는 필그림교회의 PCUSA 교단 탈퇴 후 (탈퇴로 동참하고자 하는 다른 한인교회들로부터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다고 밝히고, “같이 탈퇴하려 준비한 교회들도 있는데 대부분 큰 교회”라며 “교단 차원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필그림교회를 본보기로 삼으려 했던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으니 교단 내 남은 교회들은 교단 내에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나온 교회들은 밖에서 투쟁하면서 한 목적을 향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교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한편 양춘길 목사는 기자회견 전 새에덴교회 수요예배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전했다. 행사는 새에덴교회가 주최했고,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영안교회, 한소망교회 등도 함께 공동주관했다.

조은식 기자

“동성애와의 싸움은…”

필그림선교교회 양춘길 목사(왼쪽)는 기자회견을 통해 동성애를 반대해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교단을 탈퇴했는지, 그 과정 가운데 노회의 압박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한국교회 앞에 털어놓았다. 오른쪽은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조은식 기자

NCCCK, 88선언 30주년 기념 국제협의회 개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흥정 목사, NC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나혜집 목사, 이하 화통위)는 1988년 2월 29일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이하 ‘88선언’) 30주년을 맞이해 3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평화를 심고 희망을 선포하다’라는 주제로 국제협의회를 개최한다.

88선언은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북한의 동포들을 적대시한 한국교회의 죄책을 고백하면서 통일의 5대 원칙 즉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민의 참여, 인도주의를 천명했던 것으로, 이후 노태우, 김대중 정부는 88선언의 5대 원칙을 통일 정책에 적극 반영했던 바 있다.

이런 국제협의회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미국교회협의회(NCC), 국제 기독교구호기관인 ACT와 불교계의 니와노 평화재단 등의 해외 교회 지도자 40여명과 국내 교계지도자 80명 등 총 12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로는 WCC 총무 올라프 트베이트 목사, CCA 총무 메튜 박사, WCRC 총무 퍼거슨목사를 비롯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 자문위원인 복음주의원 자니 무어 목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첫날 환영 만찬에는 조영균 통일부장관도 참석한다.

국제협의회는 30주년을 성찰하는 세대 간 대답으로 시작한다. 통일에 대한 세대 간의 의식 차이를 인식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분단의 아픔을 나누는 이야기 나눔 시간에는 제주 4.3사건 유족, 탈북자와 금강산 관광사업 피해자가 증언한다.

두 개의 주제 강연에서 WCC 올라프 총무는 지난 30년간 세계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한 족적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평화통일을 향한 비전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앞당기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들,

특별히 평화조약과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미국 NCC 집 원클러 총무는

북미대화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 피력하고, WCRC 크리스 총무, CCA 메튜 총무, 일본 NCC 김성재 목사 등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해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편 마지막 날에는 성령서와 실천계획 등을 채택한다. NCCCK의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국교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WCC 등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전쟁반대 에큐메니칼 핫라인’ (An Ecumenical Hotline for Prevent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을 긴급하게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2) 교회협의 평화조약안을 세계 교회가 적극 논의하고 지지하면서(예: WCC, UMC, PCUSA), 각 국 정부에 평화조약 성사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을 조직하여 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WCC의 정의평화순례 (한반도 평화조약 촉구를 위한)에 청년,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일과 2021년 WCC 11차 총회 시 남북교회를 포함한 주변국 교회와 시민단체들이 ‘민간평화조약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3) 에큐메니칼 평화운동의 확산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WCC, CCA, WCRC 등이 남북 교회를 포함한 세계교회 여성, 청년대회를 최소한 격년제 한 번씩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 대회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2020년에 개최한다.

4) 교회협은 재외 한인교회들과 협력하여 ‘재외동포협의회’ (최소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영국 등)를 조직하여 디아스포라

한인들과의 연대를 확산할 것이다. 특별히, 교회협의 파트너 교단/기구들에게는 (한시적이라도) ‘한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5) 인도주의적 협력과 대안적 사회개발을 위하여 보다 많은 교회와 기관들이 EFFK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 적십자사, 로마 교황청과도 협조하면서 평양에 협력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김여정-펜스 회담, 北 2시간 전 취소 “비핵화 목표 없이는 만나지 않을 것”

북한과 미국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만남 직전 북측이 취소 통보를 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한 결과, 북미 간 회담 논의는 북측의 제의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 기간 그와 만나길 원했고 한국 정부의 중재로 회담이 성사됐다는 것이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펜스 부통령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표, 닉 아이스 부통령 비서실장인, 북측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런데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뤄질

예정이던 회담은 북한이 만남 2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해오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무산 이유에 대해서는 WP는 펜스 부통령이 9일 천안함 기습관공을 방문하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전개 등 압박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온 시점에 회담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해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펜스 부통령은) 이 만남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할 기회로 삼으려 했으나 북한이 이 기회를 잡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서울평양뉴스

리시 美외교위 상원의원 “대북 공격, 코퍼전략 아냐·대규모로 신속 종결”

북한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코퍼 전략’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로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의원이 밝혔다.

제임스 리시 공화당 외교위원회 소속 상원의원은 18일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제한적 선제타격인 이른바 ‘코퍼 전략’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이는 문명사상 가장 재앙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지만 매우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리시 상원의원은 “이 모든 것은 김정운이라는 한 사람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본토를 타

격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 체계와 핵무기 기술이 결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는 발언을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명확히 해왔고 대통령의 이런 약속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시 상원의원은 또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이나 다른 어느 국가의 말도 듣지 않았지만 중국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있어 실제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시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정보 사안들이 많지만 그 어떤 정보도 자신의 이날 발언에 반대되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평양뉴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 압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알게 됩니다.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의 설교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분명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입은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분명한 공동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경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삶의 예배’라는 것과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주일 성수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율법시대 규율을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고민하게 했던 것이 있죠.

‘주일에 공부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주일에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사 먹어도 되는가, 마는가?’

‘주일에 버스 혹은 택시를 타고 되는가, 마는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학창시절 시험 때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아버지가 잠을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시가 넘으면 바로 깨워서 공부하도록 말하죠.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아무리 쓰레기가 때문에 쉼어도 주일에는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일은 공부해도 안 되는 날이고, 놀아도 안 되는 날이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는지를 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

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삶의 어떤 부분을 희생해도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행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으니, 그다음에는 마음대로 공부하고, 오락하고, 장사하고, 일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방종’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드는 예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술’처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에서 천교와 회식자리에 술이 빠지는 일이 없으니까요? 정말 술을 마시면 신앙이 없는 것이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신실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지만, 누군가에게 늘 좋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마사도’ 되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마실 물이 좋지 않아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는데, 포도주 정도는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떤 교회에서는 성만찬에 쓸 포도주를 담을 때, 절대로 술을 섞지 않고 자연 발효를 시킨답니다. 포도는 발효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코올 성분이 생기고 도수가 올라가는데, 소주를 섞은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면 불경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은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면 경건한 것인가요?

물론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더구나 포도주를 만들 때, 구별된 것을 가지고 잘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귀한 마음들이 율법이 되기 시작하면 참 무서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나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 시대에는 제사에 드려진 음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사에 드려진 음식이 시장에서 유통되면 일반고기보다 조금 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방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을 누군가 보고 실족하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임기영 목사의 책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을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술을 먹는 마음도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해야 한다. 이웃이 너무나무 괴롭다고 나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데, 그를 위해 함께 한 잔 먹으며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틈에 한 잔 마사자는 방종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정확히 알까?

관절과 골수를 찢려 조개어 감찰하시는 주님의 영이 아신다. 자유함인지 방종인지, 정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에 새겨진 법을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규정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원칙에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좇아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다.“

성경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였던 일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

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을 까 붙여 드신 이유는, 배고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이해가 더 잘 될듯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키려고 했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 우리가 살아가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을 결정하고, 그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사는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일이나 평일이나 주님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로 작정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둘째는, 정직하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정직함’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 꿇고 자신을 비추어보기 때문이죠. 그럼 정직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저울을 가지고 직접 달아서 팔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정직하게 정육점을 운영하는 크리스천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들은 조금씩 저울도 속이고, 고기도 속여서 파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장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장사를 하면 망하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직하게 장사를 하다 보면 성공했다는 말보다 ‘망했다’라는 말을 듣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하다 망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장사를 했대?”

“응, 그 사람이 아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역설적이기는 한데, 가까이 이 땅에 살면서 말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

그런데 이것이 무척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산 제물’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고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내가 삶에서 가까이 제물 되어 죽을

수 있나?’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믿고 살다 망할 수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져야 하는 소망을 포기할 수 있는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변화산 기도회 때 이런 기도제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린 시동생 때문에 믿음을 버렸다고.

교회 이야기, 믿음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믿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호의호식하다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병에도 걸리고, 전쟁에도 지고, 역올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쫓듯하게 이긴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 걸려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암 투병 가운데서도 쫓듯하게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도 믿음의 기적이고 간증입니다.

우리가 왜 정직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까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던 그 마음에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직은 ‘영혼 사랑’ 그리고 ‘헌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정한 위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그분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편집장 장세규	교계편집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자유민주주의 정통성 밝혀야”

살롱나비, 문정부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좌편향 설정 논평서 발표

0. 문제인 정부는 좌편향 역사교육이 아닌 국민을 통합하는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우리나라는 중등학교의 역사교과서를 저술하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둘러싸고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집필기준이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전쟁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교과서를 분리하여 검인정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하였다. 이때부터 등장한 좌편향된 교과서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선전물들을 비판 없이 서술하였다. 이러한 좌편향된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다, 2013년에 교학사가 제작한 보수적인 시각의 고등학교 교과서가 검인정을 통과되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교과서가 보급되기 시작하자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좌편향의 시민단체들은 물리적 압력을 사용하여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는 이러



김영남 박사(살롱나비 상임대표·기독교학술원장)

한 좌편향을 바로잡고자 국정교과서 제작의 시도에까지 이르렀다. 정권이 바뀌자 문제인 정부는 국정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었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하고 있다. 평가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북한사 서술 소략,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 회복 문제, 임정 정통성 회복 필요, 친일문제 미적시, 외형적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음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정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고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지금까지 보수적인 시각에서 비판하여 개정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좌편향으로 되돌리면서 진행되고 있다. 살롱나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1. 중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해석을 바탕으로 저술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저술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근현대사 부분이다. 문 정부는 지난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하면서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집필기준 개정 시안은 출발부터 커다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 근현대사 역사서술에서 우파와 좌파의 역사해석이 상당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학자들의 논쟁이 지속되는 부분들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양면에서

동의할 수 있는 해석들을 가르쳐야 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교과서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역사서술 자체가 항상 논쟁거리이고, 학생들은 어느 한 편의 진영논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중등학교 역사교육은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안목과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자, 특정 학파들의 입장을 교조적으로 전수하려는 것은 아니다. 역사해석의 진영논리를 벗어나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술되어야 하겠다.

2.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고치는 것은 헌법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은 민주주의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면 역사교과서는 헌법 규정과 다른 내용을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번 통헌당 해산 결정문에서 현재는 헌법 8조 4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 속에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는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로 바꾸어 해방 후 좌파가 주장하던 진보적 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까지를 포함하여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명시되어야 한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3.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과거 교과서들보다 더욱 친북적인 서술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좌편향 교과서들의 친북적인 내용에 대하여 비판가들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도 규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집필기준은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제복만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저술되는 북한관련 내용에서 친북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 더구나 집필기간은 매우 짧고 검인정을 심사하는 인력과 기간은 더욱 짧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친북적인 서술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

4. 대한민국과 관련하여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내용(권력 세습, 인권 억압 등)이 거의 삭제되어 있어 교과서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6.25전쟁에서 남침의 명시가 빠졌고, 그 후의 설명에서 남한에 대해 반공주의와 독재, 북한에 대해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라고 표현하여 남북한이 동일한 독재체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은 빼고 정경유착을 넣었다.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화를 위한 노력에서 북한 사회 변화라는 기준만을 서술할

뿐 북한의 권력세습이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과연 이 교과서가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교과서인지를 질문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지난 번 국정교과서의 북한 내용이 축소되었다. 북한에 대한 확대서술은 북한에 대해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운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진 상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서술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5.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수립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서술해야 하겠다. 현재 역사교과서 서술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수립을 대립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수립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제대로 된 국가가 수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 후에 정부수립을 위한 노력 속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12월 12일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수립은 1910년 국권을 상실한 이후의 온 국민의 독립운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요 그러한 독립운동의 중심조직이 3.1운동의 열매로 탄생한 임시정부였다. 임시정부를 중심한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의 승인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

한민국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서술해야 하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독립노력의 결실로 맺어진 것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6.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역사교육이면서 동시에 안보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집필기준에는 남북의 통일노력의 내용만이 들어가 있고, 안보와 관련한 천안함 폭침을 비롯한 북한의 핵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지만, 그와 함께 나라를 지키는 안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라의 안보 없는 통일지상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의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역사교과서는 통일의 방안과 함께 안보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7. 역사교과서는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국민통합을 이루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교과서가 바로 역사교과서이다. 역사교육은 우리나라의 과거역사를 배움으로써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지혜를 터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교과서 저술을 통해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줄이고 국민통합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역사서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침을 여는 기도] 사랑의 연둣빛 십자가가

사람의 하나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의 자랑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 속에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마27:46) 아들의 애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에 그냥

손을 놓아버리신 하나님,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저를 기쁘게 살리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온 몸으로 받으며 십자가를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넘치는 수지와 고통의 십자가를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되지 않

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주옵소서. 지은 죄가 많아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사랑에 젖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저만 위하던 사람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은혜를 받아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악을 따라 살던 사람을 선한 일꾼으로 변화하게하시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을 화평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베

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를 사랑의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내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가 온 세상의 생명으로 시들지 않고 파릇파릇 자라나기를 희망합니다. 실천하는 사랑의 연둣빛 십자가가 이 땅 위에 많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완전히 죽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가 가득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향내가 아름다운 찬송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연오한 목사는 송실대, 송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영시작 함께 읽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미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스콜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미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제, 넓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런, 여전히 쓸 만해."

하찮고, 오래되고, 쓸쓸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마티스씨 이모씨

글: 이영숙(서울) | 그림: 박민정(대전) | 출판: 이모씨 | 2014년 10월 10일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문의 02-754-7888 **이마주**